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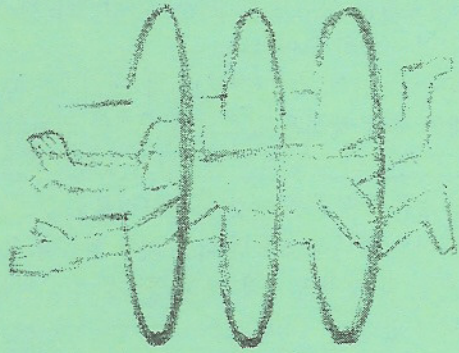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 29주일(목주기도 성월 · 전교주일)
 제27권 47호 (다해) 2007.10.21

[묵상]



얼마나

내 영혼이 머리 속에

사랑으로 주시는 당신의 살과 피를 받아

다시 삶에 생기(生氣)를 얻어

문을 나서면 얼마나 많은가,

이 진리와 사랑을 함께 나눌 내 이웃들

◆ 한광구 요셉 · 시인 / 최창원 니콜라오 · 화가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불 돕는 연락처) : (310)962-8414

연경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목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금요일	평일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주일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들

화요일	신앙학교 제4단계(중강)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3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 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폐제기도모임(2째주 토요일)	오후 6:00 오후 5:00 오후 8:30
주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전부부회/월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전 9: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 오세원 아타나시오 (310)327-803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김중돈 스테파노, 서태숙 마리아
	(생)최석원 안드레아와 태훈 야오스딩 김형순 다니엘, 김자일 시몬, 장영진 안토니오
주 일 낮 미사	(연)김금란 수산나, 이현호 요한, 김인영 베드로 이영자 마리아, 김정재 안젤라, 이규형 곤잘레스, 유지원 엘리스, 김시형 시릴로, 윤고희 바오로 김중돈 스테파노, 이은완 야고보
	(생)이중훈 안셀모와 도미니카와 대건안드레아 가정 이종민 요셉, 오창애 안나 가정, 유영준 가정 송호민과 김나영 가정, 쉐리 정과 트레이시 히구치 이진욱, 이석호 라파엘, 육근주 올리아나 석순영, 구마리아네 수녀님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Isaiah) 2,1-5

- 화답송** ◎만백성이 당신의 구원을 알게 하소서.
○하느님 우리를 어여뵈 여기소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옵소서. 어지신 그 얼굴을 우리에게 돌이키소서.◎
○정의로 못백성을 다스리심을, 이 세상 못백성을 다스리심을. 창생들이 기뻐하라, 춤추며 기뻐하라.◎
○오곡백과가 땅에서 났으니 우리 주 하느님이 복을 주십시오. 하느님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천하만방이 당신을 두리게 하소서.◎

제 2독서 로마서(Romans) 10,9-18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복 음 마태오(Matthew) 28,16-20

영성체송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가르쳐, 모든 민족들이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211	319
봉헌	270	268,220
성체	361	292,307
파견	357	245

5. 성경이란 무엇인가?

▶거룩한 전승[聖傳, Holy Tradition]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는 이 밤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하셨다. 그 하신 일들을 낱낱이 다 기록하자면 기록된 책은 이 세상을 가득히 채우고도 남을 것이다.” (요한 21,25)라는 기록이 있다. 이처럼 기록된 것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의 공동체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위탁하신 하느님의 말씀이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이것을 ‘거룩한 전승’ [聖傳]이라고 한다. 가톨릭교회는 성전과 성경을 하느님 말씀의 단일한 위탁물로 보고 똑같이 소중하게 여긴다.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성경)이나 전해지는 하느님의 말씀(성전)에 대한 유권 해석은 교회의 공식적인 권위(교도권)에만 맡겨져 있다. 그러나 이 교도권은 하느님의 말씀보다 높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에 봉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전과 성경과 교회의 교도권은 어느 하나가 없으면 다른 것이 성립될 수 없고, 각각 고유한 방법으로 한 성령의 작용 아래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하느님의 구원 약속에 대해서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문자로 기록된 성경은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해 준다. 우리는 성경에서 인간에 대한 하느님 사랑의 신비스러운 뜻과 인생의 의미, 우리 삶의 길을 발견할 수 있다. 성경보다 더 소중하고 빛나는 교리서는 없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으며, 신앙생활에서 얻어지는 참되고 충만한 기쁨을 맛볼 수 없다. 성경을 가까이 두고 자주 읽으면서 삶의 지표로 삼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하느님의 커다란 사랑을 알게 된다. 곧,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시어 우리와 함께 머무르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하느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외아드님을 세상에 보내 주셨고,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 사랑이 인간 역사에 확연하게 드러난 감격스런 이름이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이름에 그치지 않고 “그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신앙 고백으로 이어진다.

한 번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펠리피의 카이사리아 지방에 있는 마을들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가시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고 물으셨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언자 중의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고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예수께서 다시 물으시자 베드로가 나서서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마르 8,27-29). 나에게도 과연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요, 구세주이며 구원자인가?

◆(계속 - CBCK 제공)

전교는 생활의 증거

어머니는 초저녁잠이 많으시고 아침잠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머니는 아침 일찍 일어나시어 아침기도와 목주기도를 하시곤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싫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저의 아침잠을 깨우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건디다 못해 하루는 어머니께 아침기도를 다른 시간에 하시면 안 되는지 불평을 털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제 불평에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할 일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성당에 나가서 교리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에 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신자가 되어, 지금은 수도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약 30여 년 전 주님의 품으로 떠나신 어머니를 떠올려 보면 어머니는 자신의 생활로써 저를 전교하신 것입니다. 어머니의 전교 방법은 다름 아닌 생활이었습니다. 그 생활 안에는 어머니의 따뜻하고 훈훈한 사랑,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복음(마태 28,16-20)에서 제자들은 갈릴래아를 떠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으로 가서 예수님을 뵈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는 지상명령을 받습니다. 복음을 온 세상에 알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노력하는 교회’ (선교활동에 관한 교령 1항)는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 (에페 4,24)는 내용과 “하느님과 화해해야 된다” (2코린 5,20)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고 회칙, ‘현대의 복음 선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사람들을 인품으로 대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병환자를 고치시

고 백인대장의 종을 살리시는 모습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모습에서, 세리들과 음식을 함께 하시는 자리에서, 하혈하는 부인을 고치시고 눈먼 두 사람을 고치시는 모습에서, 그리고 간음하다가 발각된 여인을 대하시는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팔보다는 몸으로 보여 주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체험을 나누는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믿는다는 것은 그 말이 진실이며 논리적이라는 것일 뿐 꼭 그 말을 믿는다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진실이지만 무엇보다도 말하는 사람이 진실해야 합니다.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것은 복음의 내용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됨됨이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전 간에 사람의 됨됨이를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는 종교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됨은 생활에서 나타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하루 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생활에 걸쳐 쌓여진 것이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수도자가 되기 이전에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보다는 복음의 내용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를 바라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지 우리를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바라봅시다.

● 정원순 토마스 데아퀴노 수사신부
<지극히거룩한구주축회>

이번주 전례 봉사자

다음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다음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강정원 시몬	이진향 아녜스	엄영숙 마리아	해설자	최지영 크리스티나	최진수 에우세비오	최 숙 클라라
제1독서자	박선규 라파엘	박진수 스테파노	이민상 요한	제1독서자	박지혜 수산나	유철희 바오로	이재용 안드레아
제2독서자	민승기 로사리아	박혜경 레나타	박희자 마리아	제2독서자	이화영 잔다르크	서용숙 에스텔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1,3반	제물봉헌자			토런스 동 2,4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목주기도를 바칩시다.
- ◆ 가정성화와 레지오 재창단을 위한 목주기도 봉헌
 - 봉헌하신 목주기도는 게시판에 기록해 주십시오.
 - ☞ 지난 주간 합계: 1,443단 ☞ 총 합계: 204,695단

◆ 레지오 마리에 재창단을 위한 모임

- 10월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미사 후 레지오 마리에 재창단을 위한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주일부터는 낮미사가 끝나고 점심식사 후에도 모임을 갖습니다. 입단을 원하는 형제자매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Homeless People 돕기 오늘 주일 첫 행사

지난 한달 여 준비해온 노숙자 돕기 행사 첫 일정이 셋째주일로 연기됐으나 11월부터는 둘째 주일로 정해졌습니다.

- 일시: 10월21일(오늘주일) 오후 5시30분
- 장소: 롱비치 Project Achieve Center(59명 대상)
- 형제 자매들의 지속적 도움을 기다립니다.
- ☎ 283-5879 박홍룡 요셉(사회복지분과위원장)

◆ 울뜨레아 10월 정기모임

백삼위 푸르실리스타들은 울뜨레아에 모두 참석하여 공동체 정신안에서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의미를 되새깁시다.

- 일시: 10월26일(금), 오후 8시, 강당
- ☎ 310-294-5120(반나영 체칠리아 울뜨레아 간사)

◆ 본당 수녀님 휴가 중입니다.

- 구마리아네 본당 수녀님이 휴가 중입니다. 10월 26일(금) 돌아오십니다. 수녀님의 영육간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 안나회/요셉회 가을 온천 관광

- 일시: 11월 6일(화) 오전 7시30분, 성당 주차장 출발
- 장소: Lake Elsinore
- 회비: 회원 \$15, 비회원 \$25
-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연락주세요. ☎ 310-944-2737

◆ 백삼위 유소년 축구교실 단원 모집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1시~3시, 성당 필드
- 대상: K~ 6th grade
- 회비: 월 \$20(간식, 음료수 제공)
- 코치: 나혁구 ☎ 310-903-0650
- 감독: 오홍철 스테파노 ☎ 310-755-1631

◆ 성모회에서 빈 김치병 수거

- 크고 작은 빈 김치병을 모읍니다.
- 11월 중순에 판매할 성모회표 김치를 담은 병이니 많이 가져다 주세요.
- ☎ 310-920-1119(성모회장 임수연 에메리타)

◆ 백삼위 바둑 동호회 발족

요셉회에서 친목모임 바둑동호회를 만들었습니다. 바둑은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지매를 방지하는 등 최고의 맨탈 스포츠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둑을 사랑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대국: 주일 낮미사가 끝나고 점심 후 친교장
- 회원 가입 문의: 요셉회 이병권 파비아노 형제님 ☎ 310-947-9988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10월21일: 토런스 남 1반 (비빔밥 \$3)
- 10월28일: P.V. 3반 (육개장 \$3)

◆ 오수영 신부의 “은혜의 밤” 이틀로 연장

2007년 전례주년을 마감하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다가올 새 전례주년을 앞두고 필요한 은총을 청하는 “은혜의 밤”에 전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시: 11월29일(목)~30일(금), 성전
 - 찬미: 오후 7시 · 미사: 오후 7시30분
 - 특강: 오후 8시~9시30분
- 지도: 오수영 히지노 신부(오순절 평화의 마을 창설자)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태홍	권순봉	권오상	김교복	김상익	김영미
	김정희	김철수	김형순	노천수	문두현	민병숙
	민소혜	민순섭	민찬기	박순자	방세훈	성낙호
	소성덕	오명섭	오영섭	오일순	오호순	유근태
	윤석구	윤석봉	이규형	이근태	이상규	이석호
	이숙화	이일길	이정희	임한나	장영우	정열모
	조동욱	최귀환	한혁수	현석주	홍석인	송마이클
	합계 : \$ 5,220					

성전헌금	강태홍	권순봉	권오상	김교복	김영미	김정희
	김철수	김형순	노천수	민소혜	민순섭	민찬기
	박순자	방세훈	성낙호	소성덕	오영섭	오일순
	오호순	이근태	이상규	이석호	이숙화	이정희
	임한나	장영우	최귀환	한혁수	현석주	홍석인
	합계 : \$ 3,060					

미사헌금 : \$ 2,746

감사헌금 : 조화숙, 송호창

남가주 소식

◆ **가톨릭 장학재단 피아트(FIAT) 새 사무실 마련**
 피아트 재단(김기현 알렉스 신부)이 교우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새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아직 셋업 중이여 여러가지 사무용품이 필요합니다. 뜻있는 분들의 기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주소: 2601 W. Ball Rd. #209
 Anaheim, CA 92804 ☎ 714-702-9830

◆ **남가주 한인 위령의 날 합동미사 및 연도**
 남가주 꾸리아 협의회는 11월 위령성월을 맞아 합동미사와 연도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또 나의 죽음을 돌아보며 나의 삶을 살피봅시다.

● 일시: 11월 10일(토) 오후2시
 ● 장소: Holy Cross Cemetery Main Chaple
 ● 주소: 5835 W. Slauson Ave. Culver City
 ☎ 310-836-5550

◆ **2007년 가을 “선남선녀 만남의 장” 제 4기**
 전문가들의 레크리에이션 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런 만남이 되도록 재미있게 진행합니다.

● 일시: 11월9일(금)~11일(주일)
 ● 장소: 태메칼라 꽃동네 피정의 집
 ● 신청자격: 26~39세 미혼남녀, 가톨릭교회 안에서 혼인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남녀신자 각 20명
 ● 참가비: 숙식포함 \$250
 ● 신청 및 문의: 미주 가톨릭방송 ☎ 213-385-5564

◆ **제 26회 추수감사절 남가주 한인 천주교회 합동 야외미사 및 2부행사**

● 1부 미사: 11월22일(목) 오전 10시, 엘도라도 파크
 ● 미사 주제: “온갖 좋은 일을 행하여 열매를 맺으며...”

2부 행사: 각 본당 대항 가장행렬과 줄다리기

● 가장행렬: 성서에 바탕을 둔 내용이면 됨
 ● 줄다리기: 참가인원 20명 (남성15명, 여성5명)
 상금(1등 \$300, 2등 \$200, 3등 \$100)
 ● 신청마감: 10월30일(화) Fax 818-242-4322
 ● 주관: 성 마태오 한인천주교회 ☎ 818-242-4377

◆ **꽃동네 제2차 구약 성경 통독 피정**

● 일시: 12월 2일(주일) 오후2시~ 9일 오후 1시(7박8일)
 ● 대상: 일반 신자들, 참가비: \$200
 ● 준비물: 침낭, 세면도구, 두꺼운 옷, 편안한 신
 ● 신청문의: 태메칼라 꽃동네 피정의 집
 ☎ 951-302-3400

이번 주 단체 모임

행사의 날	
-------	--

다음 주 단체 모임

사목상임위원회	오후 1시
---------	-------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장	권순길 세실리아 (310)365-2183		
차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차장	권병연 리디아 (310)938-3255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김양금 안나 518-3041	김종환 야고보 562-628-1955 10/12(금) 오후 7시30분
	2	신중철 아브라함 949-679-4321	김정용 요한 619-4343 10/13(토) 오후 6시
	3	한길선레 스텔라스티카 782-1025	한길선레 스텔라스티카 782-1025 10/12(금) 오후 7시30분,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373-1237	정종미 클라라 539-3396 10/12(금) 오후 7시30분, 성당
토런스 서 김숙희 오틸리아 782-8549	1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김대우 비오 378-8763 10/19(금) 오후 7시
	2	이명순크리스티나 374-1572	박재철 요한&로사 530-3699 10/7(주일), 11시 미사 후
	3	김미성 미리암 798-6540	박명순 안나 750-0540 10/9(화) 오전 10시30분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김씨니 클라라 612-8840	1	신성주 엘리사벳 891-1837	최경숙 수산나 791-7004 10/19(금) 오후 7시30분, 성당
	2	임진희 한나 720-7898	박희자 마리아 791-3703 10/9(화) 오전 10시30분
	3	임형미 사비나 325-6810	박래경 헬리카 972-1616 10/12(금) 오후 7시30분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1/2	박정희 마리아 715-2609	최펠릭스&차안드레아 10/12(금) 오후 7시30분, 성당
	3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하버 카슨 박혜경 레나타 808-5005	1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최경애 프란치스카 908-5544 10/21(주일) 오후 6시
	2	김희복 아네스 326-2283	박종열 토마스 아퀴나스 784-0460 10/13(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1794	1	홍정란 클라라 544-6290	유도미니코&도미니카 714-680-4963, 10/12(금) 오후 7시30분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국세바스찬&안젤라 541-7644 10/19(금) 오후 7시30분
	3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10/19(금) 오후 7시
	4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이귀란 아네스 377-6752 10/17(수) 오전 10시30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 교회의 최대 지상사명 -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하나 앞둔 오늘 주일은 세상 모든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와 노력을 다짐하는 전교주일이다. 1922년 비오 11세 교황(1922-1939)의 교서에 의해 제정된 전교주일은 1926년부터 전 세계 교회에 확산되어, 우리나라와 미주지역은 오늘, 유럽교회는 다음 주일에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를 봉헌한다. 이는 교회와 신자 본연의 사명인 “선교”(Mission)의 권리와 의무를 일깨우기 위함이다. 전교주일의 특별헌금은 교황청 전교회로 송금되어 전교지역과 선교사를 돕는데 쓰인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15)는 그리스도의 지상사명에 따라 우리 모두는 세상 끝까지, 그리고 세상 끝 날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 따라서 선교(宣敎)는 선교사들만의 일이 아니기에, 우리는 물질적으로 그들을 도와야할 의무가 있으며, 동시에 우리 자신과 이웃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활동하여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교주일에 봉독되는 마태오복음(28,16-20)은 가해의 예수승천대축일에 봉독되는 복음과 같다. 오늘 복음은 앞서간 빈무덤 사화(28,1-10)와 연결되는 것으로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여인들에게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래아로 가라고 전하도록 분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갈릴래아의 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마태오복음에서 제자들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상봉은 여기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물론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는 예루살렘의 무덤 앞에서 발현하신 부활 예수님을 뵈었다. 한편 마르코, 루카, 요한복음은 모두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마르 16,14; 루카 24,36; 요한 20,19) 요한복음의 추가편집 부분에서 제자들은 갈릴래아에서도 부활 예수님을 뵈는다.(요한 21,1-14)

마태오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단 한 번의 상봉을 굳이 갈릴래아로 국한한 의도를 생각해 보자. 갈릴래아는 어떤 곳인가? 예수께서 하늘나라의 복음선포를 위해 첫 발걸음을 내딛었던 곳이다. 그곳은 베드로와 안드레아, 요한과 야고보 등 대부분의 제자들이 생업(生業)에 종사하던 곳이며, 동시에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의 증인으로 선택받은 곳이다. 이제 갈릴래아는 (이미 유명을 달리한 이스카리옷 사람 유다를 뺀) 열한 제자가 예수부활의 증인과 선포자로 간택되는 곳이며, 복음선포의 지상 최대 사명을 부여받는 곳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리시는 지상사명의 세부지침은 세상 모든 곳과 모든 민족들에게 ① 복음을 선포하고, ② 세례를 베풀며, ③ 가르침을 교시(敎示)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세부지침을 다시 정리하면, 이는 교회의 절대적인 사명이자 교회의 내적 생명의 핵심인 ① 복음선포(Kerygma, 케리그마)의 사명, ② 말씀과 성사교역(Leiturgia, 레이뚜르지아)의 사명, ③ 사랑과 봉사(Diaconia, 디아코니아; 또는 Caritas et Servitium)의 사명이다. 이는 곧 교회가 사명(使命)이자 동시에 권리(權利)로 여기는 교도권, 성화권, 사목권의 삼중직무를 의미한다.

교회란 곧 하느님의 백성이다. 하느님의 백성은 세례 받은 모든 신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교도권, 성화권, 사목권에 각기 자신의 신분에 따라 참여한다. 물론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20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 참여하는 것이다. 교회의 삼중직무는 원래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 죽음의 제사를 통하여 아버지 하느님으로부터 부여 받은 예언직, 사제직, 왕직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오늘 전교주일을 맞아 우리 각자의 삼중직무를 다시 한 번 마음 깊이 새기고, “갈릴래아”의 의미를 되새겨 우리의 일상(日常)과 생업(生業)에서 복음선포의 임무를 완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

◆ 박상대 신부